

칸트의 直觀形式에 對하여

金鼎高

一. 直觀形式問題의 範圍

칸트는時間과空間으로서直觀形式이라하였다 直觀形式인意味를 밝혀서그先驗性(A. priori)을立證하였나니-物을直觀하는대는만드시三個의要件으로서成立된다 一은直觀의能力이니氏는이것을感性 (Sinnling-keit)이라하고 二는直觀의內容이니라는이것을感覺 (Emprindung)이라하고 三은直觀의形式이니氏는이것을時間과空間으로서하였다 그中에感覺은外來의것이니即經驗的(A. posteriori)이며時間空間은自具의것이니即先驗的이다 時間空間의先驗性을闡명한것은實로그意思가容易한點에잇지만첫다 第一은算學及數學의先驗性에對한立證 第二는直觀內容即感覺의受納에對한先驗的規定 第三은直觀과思考(Denke)의媒介形式(時間만)으로서의先驗性에對한立證-이세가지原理의先驗的確立을爲해야時間空間의直觀的先驗性을闡明하지안할수업섯다 時間空間의三開原理에對한要用의委細한理論은氏의著純粹理性批判(Kritik der reinen Vernunft)及프로페소메나(Prolegomena)에參照하려니와 나는다만칸트의直觀形式에對한世間の誤解(重大한것만)에對하여족금만말하겠다 上述한바와갓치氏는時間과空間으로서오직直觀形式인意味의範圍以內에서問題삼엇슬뿐이다-오직智識學的으로만研究한 點에彼の本意와特色이잇다 그런데 或이이것을心理學的으로混同하여誤解한말이「時間空間은決코生得的(Angeboren) (아·프리오리와混同하여) 이아니라數三個感官-視覺, 觸覺, 筋覺等-의活動과思考의熟練으로부터漸次發達된感覺或概念이라하여 칸트의先驗談을批難하는니가잇다 그러나 時空의感覺或概念이生得的이아닌것은칸트도그것을否定할리는업다 다만直觀의形式으로서의時間空間은 時空의感覺本概念과는意味와性質이不同한것이다

칸트의本意로서는時空의感覺或概念은直觀의形式이아니라直觀의內容認識의形式의 一種으로서의時間이아니라그材料로서의一種-이다 直觀의形式으로서

의時空은絶對로그內容으로서의時空이아니다時間空間은實로感覺或概念으로서直觀의內容이기도한同時에先驗的制約으로서直觀의形式이기도한것이다 前者를心理的의時間空間이라할지니이것은맛당히心理學的의發生의問題에屬할것이오後者를論理的의時間空間이라할지니이것은맛당히知識學的의先驗性이問題에屬할것이다 그런데 칸트가直觀形式으로서取扱한時空은後者의問題에屬할것인즉時空의感覺或概念그것이經驗的의發生의것이기때문에칸트의直觀的의先驗說에何等의影響이잇을것아니다 直觀形式으로서의時空은心理上生得的의것인點에先驗性이잇는것이아니라非內容的의意味의時空으로서必然히感覺受納의制約이되는點에그先驗性이있다-時空은感覺或概念으로서一種의心理上事實이기도하지만純粹形式으로서論理的의條件이아니되는것도아니다 그럼으로 直觀形式의先驗性은오직論理的의先驗性을有한것이오心理的의先天性을有한것은아니다 論理的의先驗性이잇슴으로서비로소知識成立의普遍必然의法則이되는것이다그리고或은物理學的의或形而上學的의意味와異說로看做하고時間空間은純粹形式即無內容의것이아니라一種의實在라고主張하는니도잇고 或은直觀의形式即一種의認識關係에서만主觀的의性質을가진것으로보지안코人間理性自體의檻 房으로看做하여世界 唯現象觀을칸트의本意以外로解釋한니도잇고(이것은全然히誤解라고까지할것은업는것이 칸트自身이그만한誤解가업도록까지의確한說明이업섯스닛가) 或은칸트의直觀形式說은科學的(?)研究가아니라純思辨的의것이기때문에科學的의研究의見地에서보면역시一種의迂論에不過하다하며近日에아인스타인一派의時空相對性說이科學的의研究의結果임으로말메암아칸트의哲學的의時空의絶對性에對한假定(?)은無意味하게된것이라한다 그런데第一說과갓치칸트의時空論은實로直觀形式인範圍以內에서만議論하얏다 그리고時空으로서一種의實在로認定하지안흔것도事實이다 그러나그것이虛無孟浪할것까지는업다 왜?칸트가時空에對하여取扱한部分은時空自體의研究로볼必要가처음부터업다 或說과갓치時空은一種의實在物이라假定하더라도 (그리면칸트가그實在性을肯定하지안흔것은틀닌것이라고) 칸트의直觀形式說을依然히孟浪한것이아니다 그것은칸트가時間空間自體가원통形式의것이라는主張을積極的으로한것보담도 오직知識成立에對한關係問題로서取扱한點에오히려그本意는잇지안혀든가 時空自體의性質을專門的으로研究한것이아니라 時間空間이直觀의形式인意味의先驗性만闡明하얏스면그만이아닌가 時空自體의研究는實로物理學或形而上學의問題일것이다知識學上으로는다만知識成立의關係로서의그것을問題삼을뿐이니-時空自體의性質은如何한것이든지오직直觀의純粹形式으로서의時空의確實性만업지안타하면칸트의主目的은達한것이다그런데第一說의批難은칸트의時空論을그非本意의見地에서錯解하얏을뿐이오知識學的의意味即現象(Erscheinung)과不可認識界即理體

(Nonmena oder Dingeansich)를峻別하였다그러나그것은決코世界自體가時空의樊籠속에잠긴것이란意味도아니오 自我全體가時空의枷鎖속에갇힌것이란意味도아니다(이것만은칸트自身도多少曖昧하였다스나) 다만自我가世界를直觀하는데는반드시時間과空間을通해서만可能이다時間空間은꼭自我自體나或世界自體의形式或限界란意味가아니라 오즉自我와世界의間에直觀의關係가生할때만時空은그必須條件으로서그에相隨하는것이다 그림으로或다른見地에서自我及世界自體의局時空性を主張한다면모르겠스나直觀形式인意味의時空論으로부터그것을主張하는것은칸트에對한큰誤解까지는아닐수도있지만그本意의所在處는自我及世界의唯現象性を主張한點보담도 다만認識成立의條件으로서그先驗性を闡明할點에잇었다고생각할것이다 그리고第三說과갓치칸트의直觀形式說은或所謂科學的研究의結果가아닐지도모른다 그러나그러키새문에知識學적으로까지無意味한것은아니오 또時空相對說이科學的研究의結果이기새문에知識學上으로假定한絕對性說이全然히虛妄하게되는것도아니다 或所謂科學的研究란것은아마物理學的研究를指稱한것일지라 그러나物理學上으로要用되는時空問題가그대로다智識學上으로適用될지는지가果然疑問이다 아니 그中에適用될性質의것이絕對로업서야할리도업다만은 그것다고物理學上으로要用되는時空問題만이時空問題의全體로생각하는것은偏見이다 나는아인스타인氏의相對說에對하여詳細한理解는업다 그러나氏의主張이眞理인것은만흔實驗의結果가그것을立證한바에야다시疑心할餘地가업슬줄생각하는바-오또그것이智識學上으로關係가업지안홀출도짐작한다그러나氏의取扱한範圍는依然히物理現象을闡明하는데잇다-物理學的公理로서議論하는點에氏의本意와特色이잇다空間의認識에時間이必隨하고時間的認識에空間이相關되는것과 事實上絕對의時間과空間의存在를否定하는것이氏의時空觀의歸結인데 假使칸트가再生하여이말을들었다할지라도그時空說의見地에서이말을否定할리는업스리라한다 왜그러냐면 칸트의見地에서볼지라도個々의現狀에相隨하는時空은個個의現狀에屬한類性を抽象한概念이아니라 絕對의時空形式(個々의現狀屬한物의性質이아닌意味로)이오려히個々現想의直觀을可能케한다는것이다-時空은物의現狀에屬한性質이아니라物의現狀을直觀하는絕對形式이란意味로의絕對性은오히려더確實할수있다 事實上時間空間이모든物理現狀에必然的相隨의關係를有할진데時空自體의性質은相對的의것이라할지라도物을直觀하는形式으로서絕對의條件이란意味의絕對性은더로혀確證이될뿐이다 그리고본즉 時間空間은事實上 그것으로서物理現狀에相隨하는物理的時間空間(相對的)이기도한同時에칸氏의論理的時空說도眞理다 다만混淆와越境의過誤로부터錯亂과論爭이交起할뿐이다 그런데 時間空間

의問題는實로從來의모든사람들이생각하는그程道以上の重大한問題인줄나는생각한다. 그러기에時間空間의全體問題는到底히簡單히處理할그것이아니다. 上述한數言은다만칸트自身의時空에對한그問題의範圍를즉금만말한것이다. 모든誤解(例擧한以外것까지)는모지다그本意와範圍를違越하여解釋하는데서생긴것이다. 時間空間은여러가지見地에서觀察할수잇는問題다-算數學上으로算數學的時空을要할지며 心理學上으론心理的時空이잇슬지며 物理學或形而上學上으로物理的或形而上學的時空이成立될지며 智識學上으론論理的時空을要할지니(詳細한理論은後日에) 트칸의取扱한部分은오직最後의그것이다. 그리고重要한問題直觀形式에對한形式(Form)의意義에對하여次段에略述.

二. 形式의意義-先驗性及主觀性的

本稿는日前講演의草案을刪訂한것인데述者寒祟로因하여筆役의勞를難堪하겠기로卑語로서字數의簡畧을取함이오. 더구나下段은整理할氣力이업서 々次號에續하겠슴니다乞 恕 病凡